


[2021-25]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Press Release			
Request	For Immediate Release			Pages: 4	
Date of Release	5.17.2021 (월요일)	Contact	Tammy Cho 323-936-3014		

제26회 LA한국문화원 현대미술공모 당선 작가전: Six Artists: Abstract Perspectives

아시아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 계기 아시아계 여성작가 그룹전



Six Artists: Abstract Perspectives

May 21 - June 25, 2021

- ▶ 전시명: Six Artists: Abstract Perspectives
- ▶ 전시기간: 2021.5.21(금) - 6.25(금)
- ▶ 장소: LA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 /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 주최: LA한국문화원
- ▶ 선정작가: Jisoo Chung, Yoory Jung, Chloe Jeongmyo Kim, Hyunkyung Lim, Cat Chiu Phillips, and Julia Kim Smith (총 6명)
- ▶ 심사위원: Christine Y. Kim, Alma Ruiz
- ▶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Tammy Cho or tammy@kccla.org

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은 제26회 LA한국문화원 현대미술공모에 당선된 6명의 작가 < Six Artists: Abstract Perspectives > 전시회를 2021년 5월21일(금)부터 6.25(금)까지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1993년도에 시작된 LA한국문화원의 현대미술공모전은 인종, 학벌,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 내에 거주하는 전업 프로작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수준 높은 전시회를 개최하고, 예술을 매체로 작가와 관람객, 그리고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표전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그동안 공모전에 참여한 선정위원들과 작가들의 열정으로 꾸준히 성장해온 현대미술공모전은 올해로 26회를 맞았다. 작가들은 그들의 삶과 이데올로기, 예술적 성향 등이 스며든 작품들을 공모전을 통해 소개하고, 관람객들은 그들의 예술에 대한 시각을 작품을 통해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올해로 26회를 맞는 공모전에는 미 전역에서 97명의 작가들이 공모에 응모하였다.

이번 공모의 심사위원은 크리스틴 김 (Christine Y. Kim/LACMA 현대미술국 큐레이터)와 알마 루이즈 (Alma Ruiz/클레어몬트 대학원 교수, 독립 큐레이터)가 참여하여 Jisoo Chung(정지수), Yoory Jung(정유리), Chloe Jeongmyo Kim, Hyunkyung Lim, Cat Chiu Phillips, Julia Kim Smith 등 6명의 작가들을 선정하였다.

미국 내 현대미술의 흐름을 가능할 수 있는 동 전시회에 올해 전시는 Mixed Media 작품을 비롯하여, 유화, 드로잉, 사진, 비디오아트,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는 2021년 5월21일(금) 저녁 5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LA한국문화원 아트 갤러리에서 6월25일(금)까지 개최되며, 개막식에는 선정위원 및 작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대상 1명에게 \$3,000, 최우수작가상 2명에게 각 \$2,000, 그리고 우수작가상 3명에게 각 \$1,000의 격려금과 상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2021년 6월 25일까지 LA한국문화원 아트 갤러리에서, 개최되며 LA문화원은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통해 관람시간 별 입장 인원을 제한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 점검

및 발열 검사 등 사전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LA한국문화원은 여전히 방문을 꺼리게 되는 관람객들을 위해 집에서 생생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버추얼 갤러리', '버추얼 작가 인터뷰, 전시 하이라이트' 등 온라인 콘텐츠도 문화원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태미 조 323-936-3014로 연락하면 된다. /끝/

Jisoo Chung (정지수)

정지수는 LA와 서울을 기반으로 영상과 설치를 통해 작업하는 비주얼 아티스트다. 작가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기술 및 레디메이드에서 나타나는 체계화된 몸으로서의 여성 주체를 탐구한다. 언어 오역, 오해석과 같은 기술의 실패는 작품의 모티브가 된다. 기술을 우리 사회 및 문화의 거울이라고 바라봤을 때, 이러한 실패의 순간들은 백인 우월주의와 가부장제의 공식화가 실패한 순간들이다. 작가의 작업은 작가 내면에 얽혀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발견하고 시스템들과의 관계 내에서 자신의 주체를 재정립하기 위한 시도이다. 최근 작가가 탐구하고 있는 주제는 여성 이민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언어 간의 위계이다.

Yoory Jung (정유리)

청자 시리즈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다시 되돌아보게 한다. 시리즈속 그림들은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개념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보는 사람들은 그들이 마주하는 표면이 단순한 색상의 추상적 표현이 아닌 지속적인 청자에 대한 조사, 참조, 소재 및 작업 과정을 통해 구상적 묘사와 추상적 묘사 그리고 수행성과 대상성과 같이 대립되는 성질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정유리는 작업과정에서 한국 청자 장인의 청자를 빚는 것과 비슷한 과정을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장인 정신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청자토를 사용하거나 참조하여 찰흙 색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청자표면의 가까운 색상 층을 추가하고 비슷한 표면을 얻기 위해 사포질과 색칠을 반복적으로 하여 청자와 같은 매끄러움을, 하지만 반사 표면이 아닌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장인정신을 불어넣으려 하였고. 단색을 통해 추상화의 고요함을 탐구할 수 있으며, 작품 속 최소한의 구성과 단색이 주는 애매모호함은 주제와 대상의 미세한 변화를 탐구한다.

Chloe Jeongmyo Kim (클로이 종묘 김)

Chloe Jeongmyo Kim의 최근 작업 <China Factory>는 작가가 살고 있는 미국 오렌지 카운티의 평화롭고 단조로운 삶과 극명히 대조되는 중국 제조 공장 출장이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했다. 작가는 기계로 가득 채워진 공간속에서 노동자들의 삶이 깃들여 있는 도구와 물건들에 관심을 가진다. 낡은 기계에 붙어 있는 누르스름한 테이프 조각들, 기계 손잡이에 돌돌 말려 있는 자투리 헝겊, 노동자들의 일상으로 가득한 테이블 등 비인간적인 공간 안에서 다양한 인간적 제스처들을 사진으로 캡처하여 투명한 플라스틱 재료 위에 재구성한다. 작가는 현장에서 찍어 온 지표적 사진 레이어들과 페인팅 제스처들을 천천히 쌓아 올리면서 서정적 깊이를 만들어 나간다. 또한 빛이 투과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 인간의 흔적과 작가의 터치를 다채로운 색감과 앵글로 보여주고 있다.

Hyunkyung Lim (임현경)

임현경은 작품 속 정원의 풍경의 모습을 통해 인간이 사는 세상 및 사람들과의 공동체, 또한 그 너머의 존재의 손길과 인간의 삶의 관계에 대해 생각한다. 작품에 표현되고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는 분수, 나무를 서 있게 하는 누군가의 지지대, 쓰러진 나무의 가지를 붙잡고 있는 끈, 서로 연결하고 덮어주는 천, 그것이 이루어 놓은 무대와 같은 장막을 통해 세상 속에 인간의 삶은 서로 연결되고 보듬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천으로 덮이고 싸인 정원은 침묵 속에 고독하고도 열려진 장막을 형성하며 존재자와 대면하는 신성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Cat Chiu Phillips (캣 치우 필립스)

Cat Chiu Phillips는 크로 셰(Crochet), 직조, 자수 같은 전통적인 수공예 방법을 사용하여 공공 설치미술 작업을 한다. 작가는 플라스틱과 전자 폐기물을 포함 버려진 재료들을 대규모 설치와 공공 예술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 마닐라에서 자란 그녀는 엄청난 양의 공해, 빈곤, 인구 과잉, 자연 재해와의 끊임없는 싸움을 목격했다. 작가는 끊임없는 비극에 맞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에 대한 감탄 때문에 항상 작가의 작품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탐구해왔다. 작가는 작품에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지만, 버려진 아이탬은 문맥 적 가치 때문에 그녀의 관심사가 되었다. 작가는 국가 및 국제공공예술 커미션을 받았고 20년 이상 공립 학교에서 교육자로 일해 왔다.

Julia Kim Smith (줄리아 김 스미스)

줄리아 김 스미스는 전통 및 뉴미디어 작품을 통해 인종차별, 성차별, 그릇된 표현, 불충분한 표현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작가는 인터넷과 인터넷의 도구가 사회에 미치는 만연한 영향에 관심이 있다. 작가는 자신의 관행을 알리고 무엇이 진리이며 누구의 진리인지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두가지를 다 사용한다. 작가에게 영향을 준 예술가들은 코타 에자(Kota Ezawa)와, 제니 홀저(Jenny Holzer), 장영혜중공업(Young-Hae Chang Heavy Industries), 작가 캐시 박홍(Cathy Park Hong)과 웨슬리 양(Wesley Yang)이 있다. 사진 콜라주 Transit(환승)은 그녀의 부모가 미국 시민이 되기 전인 1955년부터 1973년까지의 작가 아버지의 슬라이드를 스캔하여 그린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의 사진이 미국에서의 그의 "주장(claiming)"하는 방법이고 미국에서의 삶이었다면, 그녀의 사진 콜라주는 그녀의 가족의 이민 역사와 그녀의 이야기를 되찾는 방법이다. 그녀는 슬라이드에서 이미지를 뽑아 겹쳐서 새로운 의미와 관점, "저기(over there)"에 있지만 아직 속하지 않은 사람의 관점을 만든다. 전체적으로 사진 콜라주는 미국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험한다.